

# <쌍화점>의 공연 및 공연공간에 대하여

주제어 : 쌍화점(雙花店), 고려속요(高麗俗謠), 충렬왕, 연행, 오기, 남장별대(男裝別隊), 여악(女樂), 향각(香閣), 장전(帳殿)

정갑준\*

## 1. 서론

<쌍화점(雙花店)>은 4연으로 이루어진 고려속요(高麗俗謠)이다. 그 내용이 음란하여 만전춘별사(滿殿春別詞), 이상곡(履霜曲) 등과 더불어 남녀상열지사(男女相悅之詞)로 불렸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중 <쌍화점>을 주목하는 이유는 충렬왕 때 궁중에서 특정한 집단에 의해서, 그리고 특정 장소에서 공연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지금까지의 <쌍화점>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면, 작가의 문제, 어석의 문제, 우물용의 정체에 관한 문제, <쌍화점>이 단순한 노래이냐 아니면 공연된 작품이냐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작가에 관한 문제는 다른 속요들과 마찬가지로 구전되어 채록된 노래라고 보는 견해와 작가가 있다면, 누구냐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sup>1)</sup> 어석(語釋)의 문제인 경우는 ‘덧거즈니 없다’와 같은 몇 가지 단어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차이를 가지는 경우이다.<sup>2)</sup> ‘우물용’에 관한 문제는 그 용을 일반적인 용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상징적인 인물 즉, 왕을 나타내는 것으로 봐야 하느냐의 문제다.<sup>3)</sup>

- 1) 양주동, 장덕순, 서수생, 전규태, 박노준 등은 <쌍화점>이 민간에서 구전되어 오다가 채록된 노래로 보고 있으며, 그 반면에 정병욱, 조운제, 여중동, 송정현, 이성주 등은 오기 혹은 그와 같은 간신배였던 김원상, 석천보, 석천경 등이 충렬왕에게 아첨하기 위하여 지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2) 어석에 대한 연구는 거의 모든 학자들이 행하고 있다. 양주동이 처음 어석에 관한 연구를 『여요전주』(을유문화사, 1947)에서 보여 준 이래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덧거즈니 없다’의 경우를 예를 들면 김태준, 김형규는 ‘鬱한 곳이 없다’로, 양주동은 ‘답답한 것이 없다’로, 박병채는 ‘지저분한 것이 없다’로, 전규태는 ‘뻑뻑한 것이 없다’ 등으로 차이를 보인다.
- 3) 정병욱, 여중동 등은 용이 왕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김택덕은 <삼장>과 <쌍화점>의 관계를 말하면서 우물용이 나오는 3연은 충렬왕 이후의 시

### <차례>

1. 서론
2. 쌍화점의 공연여부
3. 상설무대의 여부
4. <쌍화점>의 공연공간
5. 결론

### <국문 초록>

<쌍화점(雙花店)>은 4연으로 이루어진 고려속요(高麗俗謠)이다. 그 내용이 음란하여 만전춘별사(滿殿春別詞), 이상곡(履霜曲) 등과 더불어 남녀상열지사(男女相悅之詞)로 불렸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중 <쌍화점>을 주목하는 이유는 충렬왕 때 궁중에서 특정한 집단에 의해서, 그리고 충렬왕이 마련한 개인적인 장소에서 공연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고려속요의 많은 작품들은 행신들의 채록(採錄)을 통해 궁중에 들어왔고, 기관의 기녀들에게 학습되어 연행되었다. <쌍화점>은 음란한 내용으로 인해 이러한 행사들에 연행되기는 어려운 고려속요였다. 그러나 오기 등의 간신배들의 충렬왕에게 아첨하려는 의도와 충렬왕의 향락을 좋아하는 성품이 맞물려 궁중에서 사적으로 연행될 수 있었다. <쌍화점>이 무용극이나 가극의 형태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은 전문적인 연행집단, 남장(男裝)이라고 부르는 별대(別隊)에 의해 공연되었던 것만을 사실이다. 이들은 국가의 공식적인 행사나 연회를 위해서 고려의 기관에 소속되어 있던 집단과는 달리, 충렬왕의 연락을 위해 전국에서 뽑혀온 기녀(妓女)들이었다. 그리고 <쌍화점>의 무대로 여겨졌던 향각(香閣)은 꽃구경을 겸한 연회의 장소로서 상설 무대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쌍화점>이 공연되었을 실제 장소는 향각 뒤, 그리고 수강궁에 설치되었던 장전(帳殿)이며, <쌍화점>과 다른 여악(女樂)들의 공연 장소였을 가능성이 크다. 장전이 가설물이므로 상설무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쌍화점>과 같은 작품들을 연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한 공간임은 확실하다.

\* 한양대 강사

이 외에도 <쌍화점>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있으며,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려속요가 가·무·악을 동반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쌍화점>의 연행부분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쌍화점>뿐만 아니라 다른 고려속요들도 단순히 ‘팔관회나 연등회의 행사, 또는 외국사신의 접대 같은 행사에서 관청에 속한 기녀들에 의해서 춤과 함께 연행되었다’는 식의 짧은 언급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글은 <쌍화점>이 사람들에게 의해 노래로서만 불렸던 것이 아니라, 공연 텍스트였다는 점에 주목한다. <쌍화점>과 같은 음란한 내용의 노래가 어떻게 해서 궁중에 들어갔고, 궁중의 연회에서 연행되었던 이유와 연행되었다면 어떠한 공간에서 연행되었는가에 대해 논의한다. <쌍화점>은 공식적인 행사에서 연행되기에는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던 노래였다. <쌍화점>은 충렬왕이 그 음란한 내용을 즐기기 위해 사적으로 마련한 공간에서 연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쌍화점>을 연행의 관점에서 본 연구는 여중동에 의해서 시작이 된다. 여중동은 1968년에서 1971년까지 「쌍화점 考究 其一」<sup>4)</sup>, 쌍화점 考究 其二」<sup>5)</sup>, 「쌍화점 考究 其三」<sup>6)</sup>을 발표한 바 있다. 1982년에 「쌍화점 노래 연구」<sup>7)</sup>를 발표한 적이 있지만 이는 앞선 세 개의 논문을 정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쌍화점 고구 기이」는 <쌍화점>공연 무대에 대한 논문이다. 박노준은 이러한 논문들에 대해 반박하는 논문인 雙花店考」<sup>8)</sup>

기에 생겼을 가능성이 높고 그 용은 우왕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박노준은 우물에 사는 용으로 보고 있고, 송정현은 평민 또는 하인이나 과객으로, 이 도흠은 준수한 남자로, 이성주는 나그네 등으로 보고 있다.

- 4) 여중동, 「쌍화점 고구 기일」, 『어문학』 19집, 어문학회, 1968.
- 5) 여중동, 「쌍화점 고구 기이」, 『국어국문학』 47집, 국어국문학회, 1970.
- 6) 여중동, 「쌍화점 고구 기삼」, 『국어국문학』 53집, 국어국문학회, 1971.
- 7) 여중동, 「쌍화점 노래 연구」, 김열규편 『고려가요연구』, 새문사, 1982.
- 8) 박노준, 「쌍화점고」, 『한국학 논집』 11집, 한양대출판부, 1984.

를 발표한다. 그 외에 무대에 관한 논문은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이 글은 충렬왕 때의 역사기록과 여중동, 박노준의 논문 등을 참조하여 <쌍화점>의 공연과 각종 연희들이 공연되었을 것이라 여겨지는 공간에 관해 논하고자 한다.

## 2. 쌍화점의 공연여부

<쌍화점>이 공연 또는 연행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째는 <쌍화점>의 음란하고 성적행위를 상징하는 내용과 충렬왕의 음탕한 기호가 맞아 떨어져 이를 이용하려는 간신들에 의해서 궁중에 유입될 수 있었다는 것과, 둘째는 『고려사절요』의 충렬왕 때의 기록에 비추어 볼 때, 공연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음은 <쌍화점>본문 전부이다.

雙花店에 雙花 사라 가고신턴  
 回回 아비 내 손모글 주여이다  
 이 말슴미 이 店밧기 나명들명  
 다로러거디러 죠고맛감 샷기 광대 네 마리라 호리라  
 더러등성 다리러디러 다리러디러 다로러거디러 다로러  
 기 자리에 나도 자라 가리라  
 위 위 다로러 거디러 다로러  
 기 잔 디긔터 밧거츨니 없다

三藏寺에 브를 혀라 가고신턴  
 그 덜 社主 | 내 손모글 주여이다  
 이 말스미 이 덜밧기 나명들명

다로러거디러 죠고맛간 샷기 上座 | 네 마리라 호리라  
 더러둥성 다리러디러 다리러디러 다로러거디러 다로러  
 기 자리에 나도 자라 가리라  
 위 위 다로러거디러 다로러  
 기 잔 디ㄱ티 덮거츨니 없다

드레 우므레 므를 길라 가고신딘  
 우뭇 龍이 내 손모글 주여이다  
 이 말스미 이 우믈밭씩 나명들명  
 다로러거디러 죠고맛간 드레바가 네 마리라 호리라  
 더러둥성 다리러디러 다리러디러 다로러거디러 다로러  
 기 자리에 나도 자라 가리라  
 위 위 다로러거디러 다로러  
 기 잔 디ㄱ티 덮거츨니 없다

술폴 지비 수를 사라 가고신딘  
 그 짓 아비 내 손모글 주여이다  
 이 말스미 이 집밭씩 나명들명  
 다로러거디러 죠고맛간 식구비가 네 마리라 호리라  
 더러둥성 다리러디러 다리러디러 다로러거디러 다로러  
 기 자리에 나도 자라 가리라  
 위 위 다로러거디러 다로러  
 기 잔 디ㄱ티 덮거츨니 없다<sup>9)</sup>

위의 작품이 남녀상열지사로 불리는 것은 ‘내 손모글 주여이다’, ‘기 잔 디ㄱ티’와 ‘기 자리에 나도 자라 가리라’ 같은 남녀간의 사랑에 대한 표현 때문이었다. ‘손목을 잡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표현이 단순히 손

목을 잡는 행위가 아니라 성행위를 나타낸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그 잔 곳 같이’라는 표현이 그 사실을 뒷받침 해준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나도 자라 가리라’와 같이 그러한 성행위를 선동하는 듯한 표현 까지 있다. 따라서 <쌍화점>이 무용극이든 가극이든 공연된다면, 상당히 음란한 내용이 되었을 것은 당연하다. 오기, 김원상, 석천보, 석천경 등이 이러한 내용의 <쌍화점>을 궁중에 들어왔다.

고려속요들의 대부분은 행신(幸臣)들에 의해서 채록(採錄)이 되었다. 민간에서 불러지던 노래들을 행신들이 수집했고, 이 노래들은 관현방(管絃房) 등의 기관 기녀들에게 학습되었고, ‘향악정재(鄕樂呈才)’라는 이름으로 궁중에서 연행되었다. 오기 등의 간신배들이 <쌍화점>을 채록했는지, 아니면 속요들을 수집하다가 충렬왕에게 아부하기 위해 다른 속요들을 바탕으로 <쌍화점>을 직접 만들었는지는 아직까지 연구과제로 남아있다. 확실한 것은 이들이 이 노래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충렬왕이 정사(政事)보다는 원에서 배운 사냥과 연락을 좋아하는 것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권세를 유지하려했던 간신들이었다.

이들의 권력욕에 의해서 <쌍화점>같은 노래가 궁중에서 불러 질 수 있었다. 이들은 다른 속요들처럼 기녀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친다. 그러나 관현방, 대악서(大樂署)의 기녀들은 국가의 공식적인 행사나 연회에서 연행하는 사람들이었다. <쌍화점>은 그 내용으로 볼 때, 이러한 공식적인 행사에서 부르기에 부적당한 노래다. 이들은 <쌍화점>과 같은 노래들을 연행할 기녀들을 전국에서 다시 뽑고, 궁중에 두고 남장(男裝)이라 부른다.

① 수강궁에 행차하였다. 왕이 여러 소인들을 가까이하여 유희를 즐기니, 행신(幸臣) 오기(吳祜)·김원상(金元祥)과 환관 석천보(石天補)·석천경(石天卿) 등이 소리와 여색으로 환심 사기에 힘써, 관현방(管絃房)의 대악(大樂)과 재인(才人)이 오히려 부족하다 하여 행신들을

9) 『악장가사(樂章歌詞) 영인본』, 아세아문화사, 1975, 43~45면.

각 도로 보내어 관청 기생으로서 인물과 재예가 있는 자를 뽑고, 또 도성 안의 관비(官婢)나 무당으로서 노래와 춤을 잘 추는 자를 선발하여 적(籍)을 궁중에 두었다. 그리고는 비단옷을 입히고 말총모자를 씌워 따로 한 때를 만들어 남장(男粧)이라 부르고, 새 음악을 가르쳤다. 그 노래(雙花店曲)에 이르기를, “삼장사(三藏寺) 안에 등 밝히러 갔더니, 사주(社主)가 내 손목 잡았네, 혹시라도 이 말이 절 밖으로 새어 나가면, 상좌(上座)여, 이것은 내가 말한 것이리라” (三藏寺裏點燈去, 有社主兮執吾手, 儻此言兮出寺外, 調上座兮是汝語) 하고, 또 이르기를 “배암이 용의 꼬리 물고 태산(太山)의 절벽을 지나 갔다네. 만인(萬人)이 제각기 한 마디씩 하여도 두 사람의 마음엔 짐작이 있다네”(有蛇兮龍尾, 聞過太山岑, 萬人各一語, 斟酌在兩人)하였는데, 그 높고 낮음과 느리고 빠른 것이 음절(音節)에 맞지 않는 것이 없었다. 왕이 수강궁에 행차하면, 천보의 무리들은 그 곁에 장막을 치고 각기 명기(名妓)를 끼고는 밤낮으로 노래하고 춤추며 희롱거리어 군신간의 예의를 다시 찾아 볼 수 없었으며, 공궤하고 하사하는 경비가 이루 기록할 수 없이 많았다.<sup>10)</sup> - 충렬왕 25년

오기, 김원상 등은 관현방에 있는 사람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남장별대(男裝別隊)를 궁중에 둔다. 이 이유는 변명에 불과하다. 충렬왕 때에는 관현방, 대악서와 같은 기관에 이미 기녀들을 두고 있었다. 관현방<sup>11)</sup>에는

10) 민족문화추진회 편, 『고전국역총서 고려사절요Ⅲ』, 민족문화추진회, 1968, 214면.

幸壽康宮, 王狎昵群小, 嗜好宴樂, 倖臣吳祚, 金元祥, 內僚石天補, 夫卿等, 務以聲色容悅, 謂管絃坊大樂才人, 猶爲不足, 分遣倖臣, 諸道, 選官妓有色藝者, 又選城中官婢, 及巫善歌舞者, 籍置宮中, 衣羅綺戴馬尾笠別作一隊, 稱爲男粧, 教以新聲, 其歌云, 三藏寺裏點燈去, 有社主兮執吾手, 儻此言兮出寺外, 謂上座兮是汝語, 又云, 有蛇含龍尾, 聞過太山岑, 萬人各一語, 斟酌在兩心, 其高低緩急, 無不中節, 王之幸壽康宮也, 天補輩, 張幕其側, 各私名妓, 日夜歌舞藝慢, 無復君臣之禮, 供億賜與之費, 不可勝記.

11) 관현방은 대악서 이후 고려에서 설립한 두 번째 음악기관이다. 1076년(문종 30)

170명 정도의 기녀가 있었고, 대악서<sup>12)</sup>에는 260명의 기녀들을 두고 있었다. 물론 이 숫자가 항상 유지 되었던 것은 아니다. 이러한 기관들의 기녀들을 모두 합치면 상당한 수의 기녀들이 궁중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전국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은 이유는 충렬왕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쌍화점>같은 음란한 노래를 연행할 다른 집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은 근본적으로 충렬왕의 성품 때문이었다.

충렬왕은 1236년에 태어났으며 1272년에 원나라에 갔다가 1274년 원 세조의 딸과 결혼을 하고 같은 해에 고려로 돌아와서 왕위에 오른다. <고려사절요>에서는 다음과 같이 충렬왕에 대해 말하고 있다.

② 휘는 거(巨)요, 처음 휘는 심(諱)이다. 원종의 장자이며 어머니는 순경 태후 김씨인데, 고종 23년 2월 계축일에 탄생하였다. 천성이 관후하여 희노(喜怒)를 나타내지 않으며 학문에 즐겨 글을 읽고 글의 대의(大義)를 알았다. 그러나 연락(宴樂)에 빠지고 여러 소인들을 친근히 하였으며, 부자간에 사이가 좋지 않았다.<sup>13)</sup>

에 처음 설립되었고 1391년(공양왕 3)까지 지속되었다. 설치된 목적은 실질적인 음악연습과 교육을 담당하기 위해서였다. 관현방은 악공들과 교방(教坊)의 기녀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교방은 속악(俗樂)과 당악(唐樂)에 따라 가무(歌舞)를 하는 기녀들을 가르치는 기관이다. 170명이라는 숫자는 1123년(인종 1)의 기록이다. 송방송, 『한국음악통사』, 일조각, 1984, 151~154면.

12) 대악서는 고려 최초의 왕립음악기관이며, 10세기 말쯤 설립이 되어서 조선에까지 이어졌다. 대악서는 음악행정을 맡았던 관리들을 거느렸고, 왕이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여기(女伎)들을 두었다. 260명이라는 숫자 역시 1123년의 기록으로 그 해 서공이 고려를 다녀가서 쓴 『고려도경』에 있는 기록이다. 11)번 각주의 기록도 마찬가지다. 위의 책, 149~151면.

13) 민족문화추진회 편, 앞의 책, 83면.  
諱距, 古諱諶, 元宗長子, 母順敬太后金氏, 高宗二十三年二月癸丑生, 性, 寬厚, 喜怒不形, 幼, 嚮學讀書, 知大義, 然, 溺於宴樂, 昵近羣小, 父子構嫌, 在位, 三十四年, 壽, 七十三.

③ 여름 5월, 밤에 향각(香閣)에서 잔치하다가 왕이 벽에 붙은 당현종(唐玄宗)의 밤놀이하는 그림을 보고, 좌우 사람에게 이르기를, “과인이 비록 조그마한 나라에서 왕 노릇하고 있지만 놀이하고 잔치하는 것이야 명황(明皇)만 못할 수 있겠느냐?” 하고, 이때부터 주야로 계속하여 가진 기교(奇巧)와 음란한 놀이를 아니하는 것이 없었으며, 국신고(國驢庫)의 얽은 비단 20필을 순마소에 주고, 연회 날에 꽃 게단을 꾸몄다가 오래되면 이를 새로 갈아놓았다.<sup>14)</sup> - 충렬왕 22년

충렬왕은 재위 후기에 들어서 간신배들과 어울리게 되고, 연락에 빠져 주야로 음란한 놀이를 즐겼다. <쌍화점>은 이러한 왕의 기호와 거기에 부합하여 권세를 가지고 유지하려 했던 간신들의 의도에 아주 적합한 내용을 가진 노래였다. 이러한 이유들이 맞물려 궁중에서 불려진 것이다. 물론 여기에도 반론은 있다. 김쾌덕<sup>15)</sup>은 <쌍화점>의 내용을 볼 때, 궁중에서는 불리기 어려웠을 것이라 주장한다. 그는 손목을 쥐는 행위자들이 회회아비, 삼장사주, 우물용, 무뢰배(술집아비가 대표적 인물)인데, 이들은 <쌍화점>이 불렸을 당시 고려사회의 세력가들이라 말한다. 아무리 왕일지라도 세력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노래를 궁중에서 불리지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주장한다. 우물용의 경우, 왕을 상징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주장하면서, 왕을 비난하는 노래를 왕 앞에서 부르지는 못했을 것이라 말한다. 또한 《고려사》를 비롯한 기록들은 조선전기에 편찬하였는데, 그 편찬자들이 ‘역성혁명(易姓革命)’을 정당화하기 위해 고려왕들 특히 말기의 왕들에 대한 부패상, 그리고 유교를 정당화하려고 불교에 대한 부패상을 의도적으로 강조했을 가능성도 그 이유로 들었다.

14) 위의 책, 195면.

夏五月, 夜宴于香閣, 王, 見壁上唐玄宗夜宴圖, 謂左右曰, 寡人雖君小國, 其於遊宴, 安可不及明皇, 自是, 夜以繼日, 奇巧淫技, 無所不至, 又以國驢庫羅綉二十疋, 付巡馬所, 至宴日, 則粧飾花階, 久則換之.

15) 김쾌덕, 『고려속가의 연구』, 새미, 2005, 84~87면.

그러나 회회아비, 삼장사주, 우물용, 무뢰배가 <쌍화점>이 불려질 당시의 세력가들이라는 주장에는 문제가 있다. 먼저 무뢰배가 세력가일리는 없다. 회회아비는 위구르족, 서역인, 아라비아 상인들을 칭하는 말이었다.<sup>16)</sup> 이들 중 충렬왕 때 벼슬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들 전체를 세력가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노래의 내용에서도 이때의 회회아비는 시장에서 만두(쌍화)가게를 하던 상인계층의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다. 삼장사주는 삼장사의 주지를 나타내는 말이다. 삼장사는 고려 수도인 개성에 있던 가장 큰 절을 말한다. 고려의 종교가 불교이고, 그 당시의 부녀자들이 절에 가는 것을 당연스럽게 여기던 것과, 고려 후기의 불교가 부패했다는 사실을 감안해 본다면, 삼장사주는 전체 불교 또는 절들에 대한 제유(提喻)로 볼 수 있다. 우물용의 경우는 아직 그 용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용이 충렬왕을 상징한다는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무리이다. 이도흙<sup>17)</sup>은 쌍화가게, 절, 우물, 그리고 술집은 그 당시 부녀자들이 가장 많이 가던 장소이고, 그러한 장소에서 나타날 수 있는 회회아비, 사주, 용, 술집주인이 부녀자들의 손을 잡는 세태(世態)를 노래한 것이 <쌍화점> 이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해석할 때, 이 노래가 구조적인 통일성을 지닌다고 말한다. 회회아비, 삼장사주, 우물용, 무뢰배를 세력가들로 보는 견해보다는 후자의 경우가 더욱더 합당한 듯이 보인다.

김쾌덕의 두 번째 주장은 일리가 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며, 없던 기록을 자신들의 정당성을 위해 만들어 낸 경우도 적지 않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재 참고할 수 있는 기록들은 이러한 기록들 밖에 없다. 또한 역으로 이러한 기록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구분할 방법도 없다. 그리고 『고려사』, 『고려사절요』 뿐만이 아닌 다른 기록<sup>18)</sup>에도 이러한 내

16) 이도흙, 「고려속요의 구조분석과 수용의미 해석」, 『한국고전시기연구』 창간호, 태학사, 1997, 366면.

17) 위의 논문.

용들이 적혀 있다는 것으로 볼 때, <쌍화점>은 궁중에서 불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아야한다.

### 3. 상설무대의 여부

여증동은 「쌍화점 고구 기이」에서 수강궁 안에 향각이라는 건물이 있고, 그 향각은 충렬왕이 자주 연회를 베풀고 오기, 김원상 등과 함께 <쌍화점>같은 음란한 공연을 즐겼던 장소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곳에는 <쌍화점>공연을 위한 실내 상설무대가 존재하였고 가설무대도 때에 따라 같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고려사절요의 기록을 들고 있다.

④ 꽃구경을 위한 연회를 향각(香閣)에 베풀었는데, 향각 뒤에 따로 장전(帳殿)을 설치하고 크게 여악(女樂)을 벌였는데, 중랑장 문만수(文萬壽)가 물을 끌어(引水)들여 재주를 부리고 청랍건(靑蠟絹)을 오려서 파초(芭蕉)를 만들었더니 왕이 기뻐하여 백금(白金) 3근을 하사하였다.<sup>19)</sup> - 충렬왕 21년

⑤ 공주가 궁중에 사다리(層棚)를 만들어 놓고서 1천개의 등불을 밝히고, 또 광대들을 시켜 풍악을 연주하며 밤을 세웠다.<sup>20)</sup> 충렬왕(忠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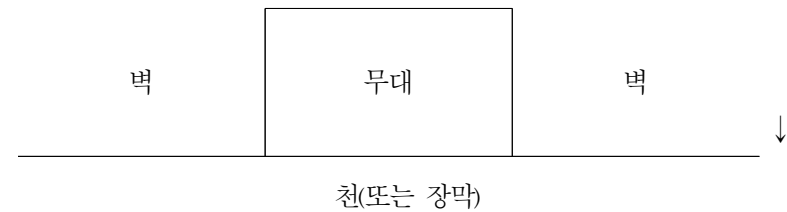
18) 『고려사』 권71 악지, 『성종실록』 권240 21년 5월 21일 기록, 『시용향악보』, 『대동야승』 권23 해동잡록6 주세붕답황준량서, 『서포집』 권2 악부, 『성로선생전집』 권8 해동악부 등의 기록들이 있다.

19) 민족문화추진회 편, 앞의 책, 189면.  
設賞花宴于香閣, 閣後, 別開帳殿, 大張女樂, 中郎將文萬壽, 引水爲戲, 翦靑蠟絹作芭蕉, 王喜, 賜白金三斤.

20) 위의 책, 119면.

王) 5년 기묘년 봄 정월

③의 기록에서 각후(閣後)라는 말을 여증동은 후치무대(後置舞臺)라는 말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장전(帳殿)이라는 말을 Curtain-Stage를 의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따라 평면적으로 무대를 그려 보면 다음과 같다.



무대의 면이 뒤쪽으로 음푹 들어간 후퇴무대, 무대 전면에 설치되어 있는 막, 그리고 향각이라는 건물 안에 설치된 실내 상설무대, 이것이 <쌍화점>무대의 형태라면, 서양의 프로시니엄(Proscenium)<sup>21)</sup> 무대와 거의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박노준은 이러한 여증동의 주장에 대해 향각에 대한 문제를 논란삼고 있다.

우선 <쌍화점>이 향각과 관계가 있는지부터 해명할 필요가 있다. 예의 <<고려사절요>>25년 5월 기록에 의하면 왕은 수강궁(壽康宮)에 행차했다는 사실에 이어 오잠 등의 아침행위, 남장 조직, 그리고 <쌍화점>의 한 역가가 나오고 다시 수강궁에서의 군신상합(君臣相合)의 음란한 놀이 애

公主, 結層棚于宮中, 燃千燈, 又令伶人奏樂達曙

21) 프로시니엄 무대는 1618년경에 등장했고, 후퇴무대에 열고 닫을 수 있는 커튼이 존재하는 무대양식이다. Oscar G. Brockett, *The Essential Theatre*, Har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 1980, 284~285면.

기가 나온다. 이로 보아 <쌍화점>은 수강궁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기존 학설에서 <쌍화점>이 공연되었다고 하는 무대인 향각은 수강궁에 있는 전각이 아니고 수령궁(壽寧宮)에 있는 건물임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향각이 <쌍화점>의 무대일 수가 없고 가극이 될 수 없음이 일단 밝혀진 셈이다.<sup>22)</sup>

박노준은 여중동의 <쌍화점>의 무대가 수강궁에 있는 향각 안에 있었다는 주장을 향각은 수강궁에 있었던 전각이 아니라 수령궁에 있었다는 실증을 들어 향각이 <쌍화점>의 무대일 수 없다는 단순한 주장을 한다. 향각이 수령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쌍화점>의 무대일 수 없으며, 그러므로 <쌍화점>이 가극일 수 없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 또한 여중동의 주장도 향각이 <쌍화점>의 실내전용 상설무대라는 주장도 근거가 부족한 듯이 보인다. 따라서 이 향각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논의를 해 보고자 한다.

먼저 궁궐의 건물들에 대해서 살펴보자. 궁궐의 건물들에는 ‘전당합각재헌루정(殿堂閣閣齋軒樓亭)’ 등이 있다. 전(殿)은 궁궐 가운데 가장 격이 높은 건물이다. 건물의 규모가 크고 품위가 있다. ‘전’은 왕과 왕비 혹은 전왕 등이 쓰는 건물이다. 그것도 일상적인 기거 활동을 하는 경우보다는 의식행사나 공적인 활동을 하는 건물이다. 당(堂)은 전에 비해서 규모는 떨어지지는 않지만 격은 한 단계 낮은 건물이다. 공적인 활동보다는 일상생활의 공간으로 쓰이며, 왕이나 왕비가 그 주인이었다. 합(閣)이나 각(閣)은 전이나 당의 부속 건물일 수도 있고, 독립적인 건물일 수도 있다. 대개는 ‘전’이나 ‘당’ 부근에서 그것을 보위하거나 특별한 목적이 있다. 재(齋)와 헌(軒)은 왕이나 왕비보다는 그 밖의 왕실 가족이나 궁궐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기거 공간이다. ‘재’는 숙식 등의 일상적인 공간으로 활용되고, ‘헌’은 그에 비해서 공무적인 기능으로 많이 쓰

22) 박노준, 앞의 논문, 28면.

이는 건물이다. 누(樓)는 바닥이 지면에서 사람 한 길 높이 정도의 마루로 되어 있다. 또한 ‘누’는 간혹 이층의 건물로 되어 있을 경우가 있는데, 일층에는 ‘각’이 붙고, 이층에는 ‘누’가 붙는다. 이러한 건물을 ‘누각(樓閣)’이라 부른다. 정(亭)은 흔히 정자(亭子)라고 하는 것으로 경관이 좋은 곳에 생기고, 휴식이나 연회공간으로 쓰인다.<sup>23)</sup>

물론 시대에 따라 달리 쓰일 수도 있고, 또 왕에 따라 특수하게 쓰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궁의 건물이 이렇게 나누어지면, 각의 이름이 붙는 향각은 수령궁 안에 있는 부속 건물이거나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가진 독립건물이다. 아니면, 일층에는 각이 있고 이층에는 누가 있는 누각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향각에 대한 『고려사절요』의 기록들을 살펴보자.

⑥ 궁중에서 꽃이 만개하여 향각(香閣)에서 신하들과 연회를 베풀었는데, 술이 얼근해지자 왕이 전리정랑(典理正郎) 민지(閔漬)와 국학직강(國學直講) 조간(趙簡)에게 명하여 새로운 악곡(樂曲)을 짓게 하니, 안향(安昻)도 또한 시를 지어 올렸다.<sup>24)</sup> - 충렬왕 14년

④ 꽃구경을 위한 연회를 향각(香閣)에 베풀었는데, 향각 뒤에 따로 장전(帳殿)을 설치하고 크게 여악(女樂)을 벌였는데, 중랑장 문만수(文萬壽)가 물을 끌어(引水)들여 재주를 부리고 청랍건(靑蠟絹)을 오려서 과초(芭蕉)를 만들었더니 왕이 기뻐하여 백금(白金) 3근을 하사하였다.<sup>25)</sup> - 충렬왕 21년

23) 홍순민, 『우리 궁궐 이야기』, 청년사, 1999, 120~123면.

24) 민족문화추진회 편, 앞의 책, 161면.

宮花盛開，宴群臣于香閣，酒酣，王，命典理正郎閔漬，國學直講趙簡，製新曲，左副承旨安昻，亦製詩以進。

25) 각주 19) 재인용.

③ 여름 5월, 밤에 향각(香閣)에서 잔치하다가 왕이 벽에 붙은 당현종(唐玄宗)의 밤놀이하는 그림을 보고, 좌우 사람에게 이르기를, “과인이 비록 조그마한 나라에서 왕 노릇하고 있지만 놀이하고 잔치하는 것이야 명황(明皇)만 못할 수 있겠느냐?” 하고, 이때부터 주야로 계속하여 가진 기교(奇巧)와 음란한 놀이를 아니하는 것이 없었으며, 국신고(國廩庫)의 옅은 비단 20필을 순마소에 주고, 연회 날에 꽃 계단을 꾸몄다가 오래되면 이를 새로 갈아놓았다.<sup>26)</sup> - 충렬왕 22년

⑦ 5월 정묘일에 왕이 공주와 함께 원나라에서 돌아왔다. 이 때 수령궁(壽寧宮) 향각(香閣)에 작약(芍藥)꽃이 만발하였는데, 공주가 한 가지를 꺾어 오라 하여 받아 들고 한참 동안 구경하더니, 감상(感傷)하여 눈물을 흘렸다.<sup>27)</sup> - 충렬왕 23년

⑧ 왕과 함께 수령궁에 이르러 향각(香閣)에 들어가서 재신(宰臣) 김연수(金延壽)에게 이르기를, “사랑을 받는 신하 김원계(金元桂)란 자가 있는데 누구냐” 하니, 이때 원계가 왕의 곁에 있다가 무릎을 꿇고 보았다.<sup>28)</sup> - 충렬왕 29년

⑨ 내고(內庫)에서 왕을 위하여 수령궁(壽寧宮)에 연회를 베풀고 꽃구경을 하게 하였다.<sup>29)</sup> - 충렬왕 31년

26) 각주 14) 재인용.

27) 민족문화추진회 편, 앞의 책, 197면.

五月丁卯, 王與公主至自元, 時, 壽寧宮香閣, 芍藥盛開, 公主, 命折一枝, 把翫良久, 感泣.

28) 위의 책, 235면.

至壽寧宮, 入香閣, 謂宰臣金延壽曰, 聞有幸臣金元桂者, 誰耶, 時, 元桂在王側, 跪見.

29) 위의 책, 244면.

內庫, 享王于壽寧宮, 賞花.

⑩ 9월에 왕이 전왕의 생일이므로 수령궁(壽寧宮)에서 축연(祝宴)을 베풀었다.<sup>30)</sup> - 충렬왕 33년

먼저 ⑦와 ⑧의 기록으로 보아 향각은 수강궁이 아니라 수령궁에 위치하고 있음이 명확해진다. 따라서 일단 박노준 교수의 위치에 대한 주장은 옳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향각에 대해서 살펴보자. 위의 기록들에서 향각에 대한 공통적인 부분들을 뽑아 낼 수가 있다. ⑧과 ⑩의 기록을 제외하면, 향각은 꽃과 관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모든 기록에서 연회를 향각에서 베풀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보면 수령궁 안에는 꽃들이 많고, 그 꽃들이 만발하는 시기에 향각에서 연회를 베풀었다고 볼 수 있다. 조금 더 확장해 보면, 그 시기는 5월일 가능성이 크고, 꽃은 작약꽃이 많았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향각은 궁중에서 꽃이 만발하는 시기에 꽃구경을 겸한 연회의 장소로 쓰이던 건물이다. 향각이라는 이름도 이러한 이유로 붙여졌을 가능성이 크다.

향각이 꽃구경을 위한 연회의 장소로 주로 쓰였다면, <쌍화점>같은 작품들이 향각에서 공연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리고 향각이 주로 꽃구경을 위한 연회로 쓰였지만, 그 외에도 다른 연회의 장소로 쓰였음은 ⑧과 ⑩의 기록으로 알 수 있다. ⑧은 그해 11월의 기록이며, ⑩은 9월의 기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록만으로 그리고 <쌍화점>이 공연되었을 가능성만으로 향각이 <쌍화점>의 무대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고려속요들은 대부분 국가의 공식적인 행사나 연회에서 공연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향각이 연회를 위한 장소였다면, <쌍화점>을 비롯한 많은 고려속요들이 연행되었을 것이다. 앞에 있는 ①의 기록을 보면 그 이유가 명확해진다.

이 기록은 <쌍화점>과 직접 연관이 있는 기록인데, 여기서 보면 <쌍

30) 위의 책, 253면.

九月, 王, 以前王誕日, 宴于壽寧宮.



화점>의 공연은 처음으로 수강궁에서 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왕이 즐긴 음란한 놀이 역시 수령궁보다는 수강궁에서 많이 있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충렬왕이 그의 재임 후반기에 더욱 더 이러한 음란한 놀이를 즐겼음을 생각해 볼 때, 향각에서도 <쌍화점>의 공연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향각이나 수강궁이 <쌍화점>만을 위한 상설 무대이었을 리는 없다. 위의 인용한 기록들에서도 보듯이 연회는 수령궁, 수강궁 어느 한 곳에서 열린 것이 아니며, 이러한 연회를 위한 상설무대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무대가 <쌍화점>만을 위한 무대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제 다시 여중동의 주장으로 돌아가 보자. 그는 앞서 인용한 ④의 기록으로 향각에 후치무대의 실내 상설무대를 주장했는데, 이 주장의 직접적 근거는 각후(閣後)라는 단어이다. 그러나 이 말은 말 그대로 향각의 뒤편, 즉 향각 안이 아니라 건물 뒤편으로 보아야 한다.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기록을 보면 ‘따로 장전을 설치하고 크게 여악을 벌였는데’로 되어 있다. 여악은 여기(女伎)에 의해서 연행되던 노래와 춤을 일컫는 말이다. 즉 <쌍화점>과 같은 노래들을 말한다. 장전은 향각과는 별도로 여악을 충렬왕이 즐기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공연 장소는 향각이 아니라 장전이다. 이 장전은 가설물이다. 장전과 여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장에서 다루어진다.

또한, 여중동은 ⑤의 기록에서 층봉(層棚)을 근거로 가설무대 역시 <쌍화점>공연에 쓰였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기록은 충렬왕 5년 정월의 기록이다. 그리고 천 개나 되는 등을 세웠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연등회의 한 행사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중동 교수의 ⑤의 기록에 대한 주장도 오류를 범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연등회에서 <쌍화점>이 공연되었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연등회의 행사와 <쌍화점>의 특성과는 거리가 멀다. 연등회나 팔관회는 고려시대 불교문화를 대표하는 행사였다. 군신(君臣)이하 백성의 참여에 의해서 국가적인 규모로 벌어졌던 행사이며, 노래와 춤 그리고 땅재주, 줄타기 같은 백희

잡기가 연행되었고, 부처와 천지신명을 즐겁게 하여 국가와 왕실의 태평을 비는 행사였다.<sup>31)</sup>

‘따로 장전을 설치하고 크게 여악을 즐겼는데’와 ‘천보의 무리들은 그 곁에 장막을 치고’의 기록을 연구자들이 간과하고 있는듯하다. <쌍화점>의 내용이 매우 음란하고, 왕이 음란한 내용을 즐겼다면, 공식적인 행사나 연회에서 <쌍화점>의 공연을 즐기기보다는 사적으로 즐겼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리고 그러한 공연을 위해 장소를 마련했을 것이다. 바로 그 장소가 장전이다. 장전에서 행신들이 충렬왕의 연락을 위해 모은 남장(男粧)이라는 여기들에 의해서 <쌍화점>이 연행되었고, 그 관객은 왕과 그에게 아첨하려고 했던 신하들이었다.

#### 4. <쌍화점>의 실제 공연공간

지금까지의 논의로 향각이 <쌍화점>의 상설무대의 가능성은 극히 적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①의 기록으로 보아 분명히 <쌍화점>은 남장(男粧)이라고 이름 지어진 별대에 의해서, 그것도 전국각지의 춤과 노래에 재능 있는 기녀 또는 무당의 출신이며, 공연을 위한 교육까지 받은 어느 정도 전문적인 사람들에 의해 공연된 것만은 사실이다. 형태가 무용극이었는지 아니면 가극이었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말이다.

①의 기록으로 볼 때, <쌍화점>과 같은 작품들이 공연된 장소는 수강궁에서는 천막을 친 곳이고, ④의 기록으로 보면 향각 뒤에 따로 설치한 장전이다. 장전은 여악(女樂)을 즐기기위해 별도로 설치했다. 여악은 여기(女伎)들이 행했던 음악을 일컫는 말이다. 여악은 송나라의 교방악의 영

31) 신선희, 『한국 고대극장의 역사』, 열화당, 2006, 135~162면.

고려시대에는 수천 개의 연등을 밝히고, 광대들의 연회를 즐긴 연등회가 자주 열렸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의 페이지 참조.

향을 받았다. 송나라의 음악인 교방악과 사악이 고려에 들어와 당악으로 발전한다. 교방악은 송나라 관청인 교방에 있던 여기들에 의해서 불리던 노래와 춤을 말하고, 사악은 노래와 관현악으로 연주한 음악을 일컫는다. 10세기 후반부터 송나라에서 온 교방악사(여기들에게 노래와 춤을 가르치던 사람)들이 고려의 음악기관들 소속의 기녀들에게 교방악을 가르쳤다. 이후로 고려의 여기들이 연주했던 노래와 추었던 춤 등을 모두 여악이라 불렀다.<sup>32)</sup>

고려시대에는 관현방, 대악서 등의 기관에 여기들을 두었다. 충렬왕 때는 남장별대(男裝別隊)라는 여기들도 있었다. 따라서 여악에는 <쌍화점>과 같은 음란한 내용의 노래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고, 당시에 많이 불리던 속요들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여악들이 공연된 장소가 장전이다. 장전은 ‘전(殿)’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 왕과 관련이 있다.<sup>33)</sup> 주로 왕이 궁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있을 때 임시로 거처하기 위해 꾸민 곳이며, 구름차일(遮日)을 치고 휘장으로 사방을 막고 바닥을 높여서는 별문석(別紋席)이나 채화석(綵花席) 등을 편<sup>34)</sup> 것을 장전이라고 했다. 즉 장전은 가설물이다. 다음은 장전에 대한 각종 기록들이다.

- ① 겨울 10월 헌강왕(憲康王)의 서자(庶子) 요(嶢)를 세워 태자(太子)로 삼았다. 당초에 헌강왕이 사냥을 나가다가 길에서 한 여인(女人)을 보고 좋아하여 후거(後車)에 태우도록 명하고 유궁(帷宮) 장전(帳殿)

32) 송방송, 앞의 책, 144~198면 참조.

33) “건물에 붙이는 이름 가운데 ‘전(殿)’자는 왕이나 왕에 버금가는 인물과 관련된 건물에만 붙였다. 궁궐이나 일반 사가에서는 아무리 높은 신분의 사람이 사는 건물이라도 왕이 아닌 한 ‘당(堂)’자나 그 이하의 ‘합(閣)’, ‘각(閣)’, ‘재(齋)’, ‘헌(軒)’, ‘누(樓)’, ‘정(亭)’ 등의 다른 글자를 붙여 격을 낮추었다.” 홍순민, 같은 책, 35면.

34)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 『한국고전용어사전』 4, 신영, 2001, 577면.

을 말함)에서 야합(野合)하여 요(嶢)를 낳았다. 그가 장성하자 체모(體貌)가 현칠했으니 진성왕(眞聖王)이 요(嶢)의 등을 어루만지면서 말하기를,

“우리 형제들의 골상(骨相)은 남과 다른 점이 있다. 이 아이의 등(背)에 두 뼈가 우뚝 솟아 헌강왕과 비슷하니 참으로 그의 아들이다.” 하고 이에 태자로 삼도록 명한 것이다.<sup>35)</sup>

- ⑫ 단오일(端午日)에 왕이 고라리(高羅理)에 장전(帳殿)을 설치하고 격구(擊毬)를 구경하는데, 양부(兩府)의 관원이 모시고 앉았으니 장전(帳殿)앞에서 시중(侍中) 이하가 모두 일어섰는데, 신돈은 말을 타고 지나가면서 채찍을 아래로 드리우고 기색(氣色)이 태연하였다. <sup>36)</sup>

- ⑬ 태조가 22살에 관직에 나가다. 격구하는 방법

고려 공민왕 5년(1356) 병신 【지정(至正) 16년.】 태조의 연세가 22세 인데 비로소 벼슬하였다. 고려의 풍속에 매양 단오절(端午節)에는 무관(武官)의 나이 젊은 사람과 의관(衣冠)의 자제(子弟)들을 뽑아서 격구(擊毬)의 기예(技藝)를 익혔는데, 그 날이 이르면 구구(九逵)에 용봉(龍鳳) 장전(帳殿)을 설치하고 길 복판에 구문(毬門)을 세우고, 왕이 장전(帳殿)에 나아가서 이를 구경한다. 연회를 베풀고 여악(女樂)을 벌려 놓으매, 경대부(卿大夫)들이 모두 따르고, 부녀들도 또한 길 왼쪽과 오른쪽에 장막을 매고 금단(錦段)으로 장식하여, 이를 화채구(畫彩毬)라 이름하니, 구경하는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된다. - 태

35)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 『삼국사절요』 2, 신흥, 1996, 410면.

冬十月, 立憲康王庶子嶢, 爲太子, 初憲康 出獵道見一女, 悅之命載後車, 帷宮野合生嶢, 及長體貌魁傑, 眞聖嶢背曰, 孤之, 兄弟骨相異於, 人兒背上, 兩骨陸起, 類憲康, 眞其子也, 乃有是命.

36) 민족문화추진회 편, 『고전국역총서 고려사절요』 IV, 민족문화추진회, 1968, 89면.

端午, 御帳殿于高羅里, 觀擊毬, 兩府侍坐, 辛屯, 於帳殿前乘馬, 侍中以下, 皆起立, 屯, 騎過, 垂鞭自若.

조 1권 총서 35번째기사<sup>37)</sup>

⑭ 임금이 태상왕을 맞이하기 위해 양주에 가다

임금이 양주(楊州) 남교(南郊)에 나가 머물렀으니, 태상왕(太上王)의 환가(還駕)를 기다리기 위함이었다. 태상왕이 양주 객사(客舍)에 머무르니, 임금이 알현(謁見)하고 술을 올려 매우 즐기었다. 저물어서 남교의 장전(帳殿)으로 돌아왔다. 이튿날 새벽에 태상왕이 출발하여 해촌(海村)의 들에 머무르니, 임금이 따라와서 술을 올리고, 냇가의 행전(行殿)으로 물러와서 머물렀다. - 태종 12권, 6년(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11월 5일 신유 1번째 기사<sup>38)</sup>

⑮ 예조에서 아뢴 사신 맞이하는 의례 절차

예조에서 사신을 맞이하는 의례(儀禮)의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아뢰었다. “그날을 앞서 유사(有司)가 모화루(慕華樓)의 서북쪽에 장전(帳殿)을 설치하고, 장전 앞에는 홍문(紅門)을 세워 오색 비단으로 꾸미고, 용정(龍亭)과 옥위(褥位)는 장전 한가운데에, 향정(香亭)은 그 남쪽에 안치하고, 사향(司香) 두 사람의 자리는 장전 바깥 좌우에 마련한다. 그리고 상왕 전하와 전하의 자리는 장전의 서쪽 길가에서 북쪽 가까이 동향하여 배설하되, 전하의 자리는 약간 뒤로 물려 설치한다. 문무 군신들의 자리는 장전의 남쪽에 설치하되, 문관은 동쪽, 무관은 서쪽으로 갈라서 모두 북쪽을 향하게 한다. - 세종 1권, 즉위년 (1418 무술 / 명 영락(永樂) 16년) 9월 2일 기유 9번째 기사<sup>39)</sup>

37) 조선왕조실록, 인터넷사이트 <http://sillok.history.go.kr> 에서 인용.

高麗恭愍王五年丙申, 【至正十六年.】太祖年二十二, 始仕. 高麗俗每於端午, 選武官年少者及衣冠子弟, 習擊毬之藝. 至其日, 於九達, 設龍鳳帳殿, 當路中立毬門, 王御帳殿觀之, 設宴會張女樂, 卿大夫皆從之, 婦女亦結幕於路之左右, 飾以錦段, 名畫彩毯, 觀者如堵.

38) 위의 사이트

辛酉/上出次楊州南郊, 候太上之還也. 太上次楊州客舍, 上謁見, 進酒極歡. 暮, 還南郊帳殿. 翼日, 太上王曉發, 次于海村之郊, 上隨至進酒, 退次于川邊行殿.

⑯ 친히 근정전에 나아가 책문을 과시하고 광화문 밖에 나아가 무과 시험을 보이다

임금이 근정전에 나아가 친히 응시자(應試者)에게 책문(策問)을 과시(課試)하고, 광화문 밖 장전(帳殿)에 납시어 친히 무과 시험을 보였다. - 세종 97권, 24년(1442 임술 / 명 정통(正統) 7년) 8월 13일 경자 1번째 기사<sup>40)</sup>

⑪의 기록은 신라 헌강왕이 사냥을 나가서 유궁(천으로 궁을 만들었다는 의미)을 설치했다는 것이고, ⑫와 ⑬은 고려 공민왕이 격구를 구경하기 위해서 장전을 설치했다는 것이 기록이다. ⑭는 조선 태종이 왕실의 어른을 맞이하러 나갔다가 장전을 설치한 기록이며, ⑮는 조선 세종이 사신을 맞이하러 나가서 장전을 설치했고, ⑯은 역시 세종이 무과시험을 참관하기 위해 장전을 설치했다는 기록이다. 장전은 왕이 사신접대나 행사 또는 사냥과 같은 특별한 일 때문에 궁궐을 나가게 되었을 때, 그 왕을 위해 설치한 천으로 된 하나의 가설물이다. 따라서 ①의 기록에 장막을 쳤다는 말도 결국 장전을 설치했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수강궁에서의 장전 설치와 수령궁의 향각 뒤에 장전 설치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궁궐 안에서 별도로 장전을 설치했다는 데 있다. 장전은 궁궐 안에서 설치하는 가설물이 아니다. 장전이 궁궐 안에 별도로 설치된 것은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특정한 용도가 있음을 의미한다. ⑬의 기록으로 보아 장전에서 왕이 연회를 베풀

39) 위의 사이트

先期, 有司設帳殿于慕華樓西北, 立紅門於帳殿前結綵. 設龍亭、褥位於帳殿正中, 香亭在其南. 設司香二人位於帳殿外左右. 設上王殿下與殿下位於帳殿之西道邊近北東向, 殿下位差後. 設文武群臣位於帳殿之南, 文東武西俱北上.

40) 위의 사이트

庚子/上御勤政殿, 親策學子, 出御光化門外帳殿, 親試武舉.

풀고 여악을 즐긴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수강궁이나 수령궁에서의 장전은 처음부터 여악을 즐기기 위해서 설치되었다. <쌍화점>과 같은 노래들을 연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가설물이라는 점에서 일반적 장전과는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된다. 수강궁이나 수령궁에서의 장전은 상설무대로 보기는 어렵다. 장전 그 자체가 가설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전은 <쌍화점>과 같은 음란한 내용의 작품들의 연행을 위해서, 충렬와의 연락을 위해서 만들어진 전용공간으로는 볼 수 있다.

### 5. 결론

<쌍화점>에 관한 기록들과 장전에 관한 기록들, 그리고 여러 논문을 참조하여 공연 여부와 공연 공간에 대해서 논하여 보았다. 고려속요의 많은 작품들은 행신들의 채록을 통해 궁중에 들어왔고, 기관의 기녀들에게 학습되어 연행되었다. <쌍화점>은 음란한 내용으로 인해 국가의 공식적인 행사들에 연행되기는 어려운 고려속요였다. 그러나 오기 등의 간신배들의 충렬왕에게 아첨하려는 의도와 충렬왕의 향락을 좋아하는 성품이 맞물려 궁중에서 사적으로 연행될 수 있었다.

<쌍화점>이 무용극이나 가극의 형태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공연을 위해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은 전문적인 연행집단, 남장이라고 부르는 별대가 있었음을 확인해 보았다. 이들은 국가의 공식적인 행사나 연회를 위해서 고려의 관현방이나 대악서에 소속되어 있던 집단과는 달리, 충렬왕의 연락을 위해 전국에서 뽑혀온 기녀들이었다. 이들은 <쌍화점> 등의 음란한 내용의 노래들을 공연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쌍화점>의 무대로 여겨졌던 향각은 그 용도가 꽃구경을 겸한 연회의 장소로서 여악이 연행되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연행을 위한

상설 무대는 아니었음을 밝혔다. <쌍화점>이 공연되었을 실제 장소는 향각 뒤, 그리고 수강궁에 설치되었던 장전이 <쌍화점>과 다른 여악들의 공연 장소임을 밝혔다. 장전은 왕이 궁궐 밖의 장소에 행차할 때, 왕의 거처를 위해 천으로 만드는 가설물이다. 수강궁과 향각 뒤 설치된 장전은 궁궐 내에 위치한다. 이는 왕이 연락을 즐기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다. 장전이 가설물이므로 상설무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쌍화점>과 같은 작품들을 연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한 공간임은 확실하다.

### 참고문헌

김명준 편, 『고려속요집성』, 도서출판 다운샘, 2002.  
 김상철, 『고려시대 시가의 탐색』, 경인문화사, 2004.  
 김열규 편, 『고려가요연구』, 새문사, 1982.  
 김영철 외, 『한국시가의 재조명』, 형설출판사, 1984.  
 김유경, 『쌍화점 연구』, 『열상고전연구』 10집, 열상고전연구회, 1997.  
 김쾌덕, 『고려속가의 연구』, 새미, 2006.  
 민족문화연구회 편, 『고전국역총서 고려사절요』,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68.  
 박노준, 『쌍화점고』, 『한국학논집』 11집, 한양대출판부, 1984.  
 박영규, 『고려왕조실록』, 웅진닷컴, 2004.  
 박종수, 이격주, 『쌍화점고』, 『논문집』 16집, 용인대학교, 1998.  
 사진실, 『공연문화의 전통』, 태학사, 2002.  
 서연호, 『한국 가면극 연구』, 월인, 2002.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 『한국고전용어사전』, 신영, 2001.  
 \_\_\_\_\_, 『국역 삼국사절요』, 신흥, 1996.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편, 『고려가요의 현황과 전망』, 집문당, 1996.  
 송방송, 『한국음악통사』, 일조각, 1984.  
 신선희, 『한국고대극장의 역사』, 열화당, 2006.

신지영, 『중국전통극의 이해』, 범우사, 2002.  
 안휘준, 『옛 궁궐 그림』, 대원사, 1997.  
 여중동, 『쌍화점 고구 기일』, 『어문학』 19집, 어문학회, 1968.  
 \_\_\_\_\_, 『쌍화점 고구 기이』, 『국어국문학』 47호, 국어국문학회, 1970.  
 \_\_\_\_\_, 『쌍화점 고구 기삼』, 『국어국문학』 53호, 국어국문학회, 1971.  
 Oscar G. Brockett, *The Essential Theatre*, Har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 1980.  
 왕국유, 권용호 역, 『송원회곡사』, 학고방, 2001.  
 이강근, 『한국의 궁궐』, 대원사, 1991.  
 \_\_\_\_\_, 『경복궁』, 대원사, 1998.  
 이경복, 『고려시대기녀연구』,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6.  
 이도흠, 『고려가요의 구조분석과 수용미학해석』, 『한국시가연구』 창간호, 한국  
 시가학회, 1997.  
 이성주, 『고려시대의 가요』, 민속원, 1998.  
 정병욱, 『한국고전시가론』, 신구문화사, 1977.  
 최미정, 『고려속요의 전승연구』, 계명대학교, 2002.  
 최용수, 『고려가요연구』, 계명문화사, 1996.  
 최철, 『쌍화점의 문학적 해석』, 『연세교육과학』 44집, 연세대학교, 1995.  
 콜린 맥커라스, 김장환 역, 『중국연극사』, 학고방, 2001.  
 홍순민, 『우리 궁궐 이야기』, 청년사, 1999.  
 홍인석, 『고려속요의 시적화자 연구 - 쌍화점과 만전춘을 중심으로』, 수원대학  
 교 석사학위 논문, 2003.

Abstract

A Study on Performance and Stage of *Ssanghwajum*

Jung, Gab-jun

*Ssanghwajum* is a *Goryeo-sokkyo*(高麗俗謠 : folk songs of at the age of Korea dynasty) which consists of four stanzas. It described sexual affairs, so it was said *Namryeo-sangryeolzisa*(男女相悅之詞 : songs of stories of sexual contents) with *Manjunchumbyeolsa* and *isanggok*. I wrote a paper on *Ssanghwajum* because, in age of Korea dynasty, this text was performed by special group in palace. Many works of *Goryeo-sokkyo* were introduced by court to Korea palace through recording and they were performed by educated official dancing girls.

*Ssanghwajum* is hard to perform in palace because of its filthy contents. *Ob-gi* and his fellows wanted to played up to the King *Chungryeol*, so they performed *Ssanghwajum* in front of him. The King liked sexual stories. Thus *Ssanghwajum* was often performed in palace privately. It wasn't sure that *Ssanghwajum* was a kind of dancing-dramas or a kind of lyric-dramas, but it was sure that *Ssanghwajum* was performed by educated official dancing girls who were called *Namjangbyeoldea*, which means a special group of women, who wear man's clothes. At period of Korea dynasty, the nation had a organization which educated dancing and singing to *gisaengs*(妓生 : singing and dancing girls in a bar) and was in control of them. However *Namjangbyeoldea* didn't belong to this organization. They were selected from the whole country, and they performed *Ssanghwajum* in order to only The King's pleasure.

*Hyanggak*(香閣 : a structure of in palace) which once was considered as a *Ssanghwajum*'s stage wasn't a permanent stage, but a kind of banquet halls which was

often used as flower viewing. Actually *Ssanghwajum* was performed in *Jangjun*(帳殿: established a temporary palace) that was established behind *Sugang*-palace(which was a palace in Korea dynasty) and made of cloth. In this place, *Yeo-ak*(女樂 : music played by gisaengs) was also performed. *Jangjun* was a temporary so that wasn't a temporary palace but its special stage for performing of *Yeo-ak* such as *Ssanghwajum*.

Key words : *Ssanghwajum*, *Goryeo-sokkyo*(高麗俗謠), The King *Chungryeol*,  
Performance, *Oh-gi*, *Namjangbyeoldeae*(男裝別隊), *Yeo-ak*(女樂),  
*Hyanggak*(香閣), *Jangjun*(帳殿)

접 수 일 : 2007년 8월 27일  
심사기간 : 2007년 9월 1일~29일  
게재결정 : 2007년 9월 29일